

기아차 파업 장기화 되나

어제 12시간 부분파업 ... 1,300억 매출 손실 "18년째 되풀이" ... 지역 경제계 우려 목소리

현대차 노조가 14일 부분파업을 철화한데 반해 기아차 노조는 이날 주야 6시간씩(잔업 포함)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로 18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기아차 파업은 지난달 2일 이후 한달을 넘기고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다.

기아차 노조가 이날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광주공장을 비롯한 기아차의 파업손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달 2일부터 5차례 56시간(잔업포함시 44시간)의 파

업으로 생산차질은 3천600여대, 매출손실은 490억원에 달했다. 기아차 전체는 생산차질 1만여대, 매출손실 1천300여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기아차 파업이 이처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의 산별 중앙교섭이 한달여를 넘긴데다,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측이 마련한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심야시간 근무를 폐지해 조합원의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현재 각

10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는 게 골자다.

기아차 광주공장지부 관계자는 "임금손실,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없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야 조합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노사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이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근무시간 단축은 2008년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 기아차 노조는 ▲기부금 13만4천690원(8.9%) 인상 ▲매달 통상급의 300%를 생계비 부족분으로 지급 ▲휴가비·유류비·명절 선물비 등 90만원 인상을 ▲상여금 800% 지급 ▲매년 사업계획과 신차 개발계획, 월별 판매전략 등을 노조측에 통보 ▲'쏘렌토' 후속모델 북미공장 생산금지 ▲정년 2년 연장 ▲휴가일수 증가 ▲노사동수장계위원회 구성 등을 사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협력업체도 기본 근무시간이 줄어들든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인해 모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순간 부품 협력업체는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아차 노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가 합의되더라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2008년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 기아차 노조는 ▲기부금 13만4천690원(8.9%) 인상 ▲매달 통상급의 300%를 생계비 부족분으로 지급 ▲휴가비·유류비·명절 선물비 등 90만원 인상 ▲상여금 800% 지급 ▲매년 사업계획과 신차 개발계획, 월별 판매전략 등을 노조측에 통보 ▲'쏘렌토' 후속모델 북미공장 생산금지 ▲정년 2년 연장 ▲휴가일수 증가 ▲노사동수장계위원회 구성 등을 사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종태기자 jtlea@kwangju.co.kr



태극문양 넥타이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남성복 코너에서는 제 6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심 마케팅'의 일환으로 14일 특별 제작된 태극문양의 넥타이를 선보였다.
(롯데광주점 제공)

광주지역 경기하강 추세 뚜렷

2분기 산업생산 1년새 5% 감소 ... 3분기 BSI도 비관적

울 2·4분기 광주지역은 산업생산이 1년새 5% 가량 줄고 제조업체의 업황도 나빠지는 등 경기하강 추세가 뚜렷했다.

또 광주는 소비위축 속에서도 유통업계의 명목상 판매액은 되레 늘어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라

면 2·4분기 광주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4.9% 줄었다.

광주의 산업생산 감소는 원자재값 급등과 내수둔화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는 2·4분기 생산자제품 재고가 24.2%나 불어날 만큼 내수절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주축 산업인 자동차 생

산이 5.2% 감소한 가운데 영상음향 및 전기장비 생산이 각각 12.3%, 8.4% 줄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향후 경기예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 제조업체의 3·4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2까지 떨어졌다.

이는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지난해 1·4분기(92) 이후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90% 초반으로 주

저앉았다. BSI가 낮을수록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물가로 인한 가계경제 위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는 2·4분기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5.3% 상승했다.

물가급등의 수준은 소비동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4분기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천8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8.1%(291억원) 늘었다.

고물가로 소비자들 사이 '허리띠'를 조이고 있지만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유통업계의 경상 판매액은 되레 늘어난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구체적인 방안·시기 안나와 우리금융 매각 방향이 좌우

■광주은행 민영화 어떻게 돼가나

지역 상공인 인수 논의 재점화 예상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민영화 방향이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민영화대상 27개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확정됐을 뿐 기본적인 윤곽이 제시되지 않은채 '국민주 방식' 매각방안만 나와 대주주인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광주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다시 진행될 경우 잠재해 있는 지역상공인들의 광주은행 분리매각 요구와 지역기업 컨소시엄의 인수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우리금융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포함되면서 광주은행의 민영화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선 광주은행의 민영화 방식은 대주주인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윤곽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우리금융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켰고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 또 국민주와 관련 정지권 등이 기업마다 일률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민영화의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금융의 민영화에 대한 공식, 비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만큼 광주은행의 민영화 방식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지역 금융계의 설명이다.

또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이 201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광주은행의 민영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말 자산이 15조2천800억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인 데다 국내증시 악화까지 겹쳐 조속한 매각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광주은행 안팎의 관측이다.

더구나 주식시장 악화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지분(73%) 평가액이 지난해 말 11조8666억원에서 최근 8개월새 1조6천700억원 가량 증발되는 등 공적자금 회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다.

따라서 민영화 시기조차 점칠 수 없다는 게 광주은행 관계자의 분석이다.

단지 과거 정재석 전 행장 시절 PF구상 등을 통한 매각 검토와 함께 광주상공인들의 인수추진 등이 논의됐기 때문에 광주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 문제는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투교협 광주·전남지역협 경제교육 산실로 발돋움

3년째 증권·자산운용 무료 강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가 증권 등 경제교육의 산실로 발돋움하면서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출범한 이후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증권과 금융, 자산설계 등 종합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는 증권업협회·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등 증권 및 금융관련 9개 유관기관이 증권과 자산운용 분야의 체계적인 투자자교

육을 위해 만든 단체로,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 전국 8개 지역협의회 가운데 하나다.

광주전남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결성 직후부터 교수·금융 전문가들로 위원 및 강사진을 구성하고 증권시장의 이해와 펀드투자 요령, 생애별 자산설계 방법 등

투자중심의 경제교육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몇몇 금융 관련기관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경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지역협의회 교육은 자산운용 등 투자분야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협의회는 그동안 3천여명의 지역민들에게 투자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보더라도 1년동안 매달 한차례씩 1천여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능력을 제공했다.

특히 교육생 숫자 늘리기보다 장애인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자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지역협의회는 이같은 성과에 대한 성공사례를 오는 29일과 30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투교협 주최로 열리는 '2008 투자자교육 워크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아름에탁금

6.50%

1년 만기 (한시판대)

5억원이상, 원리, 원금 3년간 100%보장

- ▶ 원금 5억원 이상은 원금 100% 보장
- ▶ 원금 1억원 이상은 원금 90% 보장
- ▶ 원금 5천만원 이상은 원금 80% 보장
- ▶ 원금 1천만원 이상은 원금 70% 보장

6.3%

▶ 두 임 신탁

일중한의원

신생아 전문 진료

신생아 전문 진료

- ▶ 신생아 전문 진료
- ▶ 신생아 전문 진료
- ▶ 신생아 전문 진료

예약전화 062) 676-1075